

## 한국영화 속에 나타난 키치패션에 관한 연구 -2002년~2004년 상반기 상영된 영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Kitsch Fashion Reflected in Korean Mov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ovies released between 2002 and 2004-

이영숙

동명정보대학교

Lee Young-Sook

TONGMYO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 요약

19세기 산업 혁명 이후 등장한 키치(Kitsch)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산업화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대중문화 속에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지니며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 키치는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패션부분에서도 기존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파괴라는 형태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미를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키치에 대한 기본 이해와 아울러 최근의 국내 코미디 영화 속의 표현된 배우들의 패션에서는 키치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 보았다.

### Abstract

"Kitsch", having emerged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9th century, has been playing a role of interconnecting pop culture with high level culture, now claiming new aesthetic values in a variety of pop cultures of our industrialized modern society and holding its position as a cultural phenomenon. In the realm of fashion which is very much attached to everyday life, kitsch has also been expressing new forms of beauty through the liberation from and destruction of the fixed ideas.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s as to how we obtain the basic understanding of kitsch and shows how it was expressed in the fashion of the actors starring in the recently released Korean comedy films.

## I. 서론

다양한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한 대량생산, 대량전달, 대량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예술이라고 부르는 문화 산물들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양산된 문화는 사람들의 욕구를 더욱 자극하였고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더욱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다양화, 세분

화된 욕구는 예술분야에서도 더욱더 새롭고 실험적이며 전위적인 스타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것은 패션의 세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패션에 나타난 스타일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요소, 생활습관, 경제상황, 예술적 경향까지 표현하고 있어 시대의 증거임을 알 수 있다.

패션은 개인의 심리와 역할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행을 통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표

현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키치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나타나 다양하고 변화된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동기를 제공하였으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대중문화 속에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지니며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키치패션은 최근 몇 년간 유행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국내 코미디 영화 속의 주인공의 유사한 패션에서 발견된 키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키치의 개념

키치의 어원으로는 첫째로는 1860년대부터 1879년대 사이에 독일 뮌헨의 화가들이 값싸고 하찮으면서도 많이 팔릴 수 있는 조잡한 예술품, 혹은 그림을 키치라고 불렀는데 당시 뮌헨을 찾은 영국계 미국인들이 사갔던 그림들을 'Sketch'라고 불렀던 것이 독일 어식 발음으로 변형이 되면서 Kitsch가 됐다는 설이 바로 'Sketch설'이다.[1]

둘째는 메클렌부르크 방언에서 '값싸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verkitschen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다는 설과[2], 셋째는 '일룩' 혹은 '진흙을 가지고 놀기'라는 독일어에서 왔다는 설로 여기서 진흙이라는 의미는 더럽다는 것으로 이는 키치의 부도덕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사전에서는 키치를 "고급문화의 미적 기준을 부적절하게 모방한 대량생산된 예술이나 사물을 의미하는 용어" 혹은 "통속적이고 저속하고 값싸고 나쁜 취향으로서 슈크와 대립되는 개념의 사물이나 이미지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디자인 분야에서는 키치의 용어를 '모조품'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뒤에 기능주의적인 모던 디자인의 경향을 'good'이라고 한

다면 키치는 'bed'를 의미한다고 하는 디자인 평가의 대립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4]

또한 키치는 "참된 문화의 가치에는 무감각하면서 도 특정한 문화만이 제공할 수 있는 오락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대중문화라고 하였다[5]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키치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면서 통속적으로 저속하고 나쁜 취향의 하찮은 사물과 이미지의 총칭이면서 진품이 아니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값이 비교적 저렴한 것이며 윤리적으로 부정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키치의 발생배경

19세기 산업혁명의 파장은 우선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상품생산과 공급의 변화를 가져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하였다.

산업혁명으로 초래된 새로운 시대는 대부분의 사회계급을 소비자로 바꾸어 농음으로써 취향의 문제를 역사 정면에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키치의 출현 시기는 19세기 이후 새로운 제조 상업문화의 출현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시민계급에 있어 부의축적은 중류계층으로 상승하는 '사회적 지위 이동현상'으로 파생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계급은 상류계층의 행동양식을 모방하여 자신들의 논리 규범을 예술작품의 생산과 관계 지으려는 태도를 나타내면서였다.[6]

키치의 발생을 미적 원천과 사회적 원천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미적 원천은 예술적으로 타락한 낭만주의의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원천은 19세기 중반 부르주아 사회에서 나타난 예술의 산업화 과정에서 볼 수 있다. 부르주아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방식으로 귀족계급이 사용한 기호들을 차용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려 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키치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었

고 산업혁명을 통해 일반 대중에서 파급되었다.[7]

### 3. 키치패션의 특징

키치패션은 고상하고 품위 있는 세련된 멋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산만한 장식을 통해 일부러 저속함을 나타내는 패션으로 품위없는 친한 모습의 옷차림과 싸구려 액세서리 등에 의한 과잉장식을 통해 지저분하고 추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옷차림을 말한다.[7]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유행은 상류계층의 하이패션이 싼값의 복제품으로 만들어져 중하류 계층이 애용하면서 기성복 산업이 출현, 발달하면서 의복이 다양화되었다.

특히 기계방직의 발달로 기성복 산업은 급속하게 발달하였고 디자인의 확실성은 의복상의 신분과 직업, 연령의 구별을 없애면서 의복의 통일화를 실현해 갔으며 생산량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기업화로 인해 패션은 종래와 같은 소수 상류층보다 더 넓은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9]

또한 20세기의 대중화 사회형성의 의해 패션도 과거의 엄격한 의복규범과 위계질서에서 벗어나면서 반항과 불일치, 사회적 개혁을 위한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시도, 개성과 독창적인 특성을 지닌 키치패션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이 탄생하게 되었다.

현재 패션에서의 키치적 이미지는 자극적이고 저속한 색채, 산만한 장식, 싸구려 소재들의 사용으로 현대의 물질문명에 대한 반감을 대변하면서 혁신적인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4. 영화 속에 표현된 키치패션

지난해 한국영화 박스 오피스 10위안에 든 영화 중 대다수가 코미디 장르였다.

관람객의 욕구는 더욱 다양화되는 추세에서 최근의 코미디 영화들은 하나의 장르만을 고수하지 않고 코믹적인 요소에 로맨틱과 액션, 드라마적 요소를 뒤섞

는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영화의상 역시 시공을 초월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며 내달린다. 현대물이어도 한복차림이 삽입되고, 동화나 컴퓨터 게임기의 캐릭터를 패러디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마디로 코미디 영화의 의상은 과장된 키치 패션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코미디 영화의 여성캐릭터의 경우에는 개성으로 승부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키치패션을 함으로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코미디 장르에서 어수룩하고 순진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착용하는 츄리닝 패션도 일종의 키치 패션이라 할 수 있다. 츄리닝은 일반적으로 운동복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츄리닝은 그야말로 촌스러움의 극치다.

더욱이 경찰역할의 인물이 시종일관 핑크색 츄리닝을 입고 나오고 강력계 형사의 연두색 츄리닝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을 유발시킨다.

최근 들어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조직폭력배이다. 이들의 패션에도 키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포츠 칼라의 헤어스타일에 원색의 화려한 문양의 셔츠 칼라를 짓혀 입고 넥타이도 매지 않은 패션은 일반적으로는 리조트에 어울리는 옷차림이나 이미 이 스타일은 대한민국 건달 패션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렸다.

또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만화캐릭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플라스틱 큰 귀걸이를 하는 것도 영화 속에 나타난 키치패션이라 하겠다.

## III. 결 론

2002년에서 2004년까지 한국 영화계를 돌이켜 보면 작가적 야심이 충만한 작품에도 어김없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과 혀를 찌르는 대사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본 연구를 통해 본 코미디 영화는 3류 인생들을 대변하는 영화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들 영화 속에 그려

진 캐릭터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조폭'들의 세계에서 그들의 생각과 생활을 보여주면서 공통적으로 키치패션이 등장하고 있었다.

'조폭'이라고 하면 짧은 스포츠머리에 검은 정장, 검정 선글라스로 마무리한 암흑가를 대표하는 패션 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영화 속의 그들은 올백 스타일의 헤어에 동물무늬 셔츠, 배꼽을 덮어 입는 바지, 흰 구두 그리고 순금 액세서리 착용으로 과장된 키치패션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영화 속 복장은 관객들에게 웃음을 유도하는데 손색이 없었으며 새로운 코미디 바람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의 키치패션은 그들의 성격은 물론 직업까지도 쉽게 알아차리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키치라는 것이 저속한, 천박한 부류의 것으로 정의된 만큼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3류 인생을 평범하지 않은 패션으로 보여주고 있거나 모방적이고 유희적인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복식에서 말하는 키치패션은 스스로의 목적과 가치를 향하여 발전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시 재배치, 재조립하여 그것들이 서로 교환, 비교 변형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 주는 것이었지만 영화 속의 키치패션은 그들의 직업을 부각시키고 관객들에게 웃음을 자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영화속 허구와 실제 삶 속에서 키치패션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키치 코드는 이미 대중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키치패션은 소수 집단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대중화가 되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온 만큼 키치패션 역시 패션의 한 트렌드로 또는 유행 아이템의 하나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 참고 문헌 ■

- [1] K.Hearise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오병남, 최연희 역, p.123, 서광사, 1988.
- [2] 이병애 "독일문학작품에 나타난 키치에 대한 연구" 독일문학 14집, p.73, 1973.
- [3] Robert C. Solomon, "On Kitch an Sentimentality", 김영미 역, Jacc, 겨울호, p.127, 1991.
- [4] 디자인 공예 대사전, 미술공론사, p.10, 1990.
- [5] 이영옥 "Kitsch 미술우리문화", ART&CREFT, 1992, 10월호
- [6]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술, p.183, 1997.
- [7] 이영옥 "키치란 무엇인가", 아트&크래프트 1992(10월호)
- [7] 정삼호 "현대 패션 모드", 교문사, p.111, 1996.
- [9]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p.275, 1999,